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14년 34호

여름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Contents

2014년 제34호 여름호

시론	3	참여하며 즐기고, 동참하면 행복한 "중앙약대 동문회"를 아십니까 • 이 경 옥 (19회) 부회장
인터뷰	4	원로 동문의 Healing Life • 황 공 용 (11회) 편집고문
동문회 소식	6	2014 전반기 동문회 행사
	8	제 57차 정기총회
동기회 소식	10	26회 동기회 물방울장학금 전달 • 손 영 상 (26회) 회장
	11	38회 동기회 졸업2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 임 규 리 (38회) 총무
별난동문이야기	14	"투약봉투에 고객의 마음, 그림으로 담고 있죠" • 김 기 명 (18회) 편집위원장
약국도움이야기	16	항생제의 종류 (1) • 편집위원회
문학산책	20	미안하다, 올레여! • 박 희 용 (23회) 편집위원
실험반소개	26	약제학실 동문회 • 박 준 상 (39회) 회장
회원동정	28	회원동정
	30	한국약사방송국 '소리로 약사사회와의 소통 꿈꾼다'
장학기금	31	
편집후기	33	

중앙약대 동문회보

인쇄 : 2014년 7월 25일

발행 : 2014년 7월 25일

발행인 : 장 재 인 I 편집인 : 김 기 명

발행처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2호

전화 : 565-1700 팩스 : 564-1701

인터넷 : http://www.caupharm.or.kr

E-mail : capa21@hanafos.com

기획 · 인쇄 : (주)YSP

전화 : (031)955-0150(대)

팩스 : (031)955-0159

참여하며 즐기고, 동참하면 행복한 "중앙약대 동문회"를 아십니까

연잎의 지혜를 아시는지요?
'빗방울이 연잎에 고이면 연잎은 한동안
물방울의 요동으로 일렁이다가 어느 정도 고이면
수정처럼 투명한 물을 미련 없이 쏟아버린다.
이런 광경을 무심히 지켜보면서
연잎은 자신이 감당할 만한 무게만 싣고 있다가
그 이상이 되면 버리는 그 지혜에 감탄했다.
그렇지 않고 욕심대로 받아들이면 마침내
잎이 찢기거나 줄기가 꺾이고 말 것이다.
세상 사는 이치도 이와 마찬가지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경옥 (19회)
부회장

언제부터인가 약국가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만 가고, 시간이 지나도 좀체 회복의 기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는 호전될 방향성을 상실한 지 오래이며, 경기 침체의 골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깊어만 가는 등 어느 하나 방심할 수 없는 외적 요인이 산적해 있음에 더해, 약국가로 시야를 좁혀 보더라도 장차 어떤 회오리를 몰고 올지 모르는 법인약국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채로 현재진행형으로 우리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약업계의 현실은 대단히 어렵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약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방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시원한 방도는 없을 것이고, 우리의 어려움을 대신해 줄 누구도 실재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더욱 더 힘든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나 임시방편적인 눈가림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불평이나 불만이, 주변에 대한 불신이 해답이 될 수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에 고개 숙이는 것이야말로 희망의 씨앗이라는 사실에 어렵지만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우리 동문회에서 찾고 싶습니다. 우리 중앙약대 총동문회 장재인 회장을 중심으로 회장단의 끈끈한 결속을 통해 모교 사랑의 기치아래 화합과 단결이라는 동문회의 희망을 통해 미래를 봅니다.

여기에 양덕숙 회장이 주축이 된 화기애애한 우정으로 똘똘 뭉쳐진 중앙약대 여동문회의 강력한 협력과 지원이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그 희망이 배가되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시작은 동문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이며, 이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동문회의 '보물이요 보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님! 동참하시고 참여하시면 즐기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전제나 조건에 연연하지 말고 흔쾌히, 기쁘게 참여해 주십시오. 해결의 실마리는 우리가 같이 할 때 비로소 가닥이 잡히게 되어있음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 합일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소박하지만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동문여러분들의 희망과 행복과 건강을 아낌없이 기원합니다!

원로 동문의 Healing Life

– 최종묵 동문의 그림 그리기

황공용 (11회)
편집고문

9988234, 최근 수년간 우리네 일상생활에 용케도 자리 잡은 숫자다. 어렸을 때는 환갑까지만 살아도 동네 유일의 장수어른으로 대접받았는데, 구십구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고생하고 사망하겠다는 것이 욕심 아닌 현실이 되었다. 이제는 100세를 넘어서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희망적인 목표가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다.

최근 어떤 일로 문득 삶을 되돌아볼 시간이 있었다. 1963년 중앙약대에 입학하고 졸업 후 11회 동기회장을 맡고 또 동문회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인생 칠십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되돌아보니 동문회를 위한 열정이 솟구쳤던 4-50대를 폭풍우처럼 보내고 나서 이제야 생각의 여유가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나서 생각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다 보니 선배님들의 행적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후배들에게도 그들의 Healing Life를 본받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체 없이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다.

2014년 6월 17일 반포의 중화요리집에서 최종묵(3회) 동문선배와 조촐한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 우리 약대 동문회 9대 회장(1988~1991)을 역임하신 선배님은 평소 후배들을 아끼고 동문회와 모교를 위한 열정이 뚜렷하신 후배들이 존경하는 원로 선배였다.

필자와는 회무로 이어진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1988년 동문회장이 되신 최회장님이 필자에게 동문회보를 만들어 보라는 부탁이 있으셨고 그해 '중약소식'이라는 동문회지를 창간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동문회 최초의 회지였고 그 일간지 형태의 신문양식의 동문회지가 오늘날의 책자형식의 '중앙약대 동문회보'가 된 것은 2000년 7월 13대 유영후(7회) 동문회장 시기였다. 그러니까 1988년 중약소식 창간과 2000년 7월 동문회보 창간시 편집을 맡아 2009년까지 동문회 편집위원장을 맡았던 필자로선 귀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 17일 서초구약사회 자선다과회에서 필자는 뜻밖의 광경에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혀 예상치도 않게 그곳에 최종묵 회장님의 작품 8점이 출품되었던 것이다. 오랜 세월 교유를 계속해 오고 있지만 그림을 그리신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필자로선 어안이 벙벙했고, 결국 선배님의 Healing Life를 좀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Q. 아니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셨나요?
A. "얼마 되지 않았어. 한 3년 됐는데 인생 말년에 좋은 취미가 있는 것이 좋다고 해서지!"

Q. 그러면 누구한테 사사를 하셨나요?
A. "아니! 그저 혼자서 했어. 그러나 지도는 조금 받았지. 집 앞 신세계백화점 제일 꼭대기에 문화교실이 있는데 거길 다녔어."

Q. 중앙대약대 3회로 졸업하신 후 잠시 서대문에서 바이엘약국을 하신 후 줄곧 동물약품제조을 해 오셨는데 그림을 그리시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A. "그렇지 않아. 나도 동문회 초대 심상균(1회) 회장 때 참여하기 시작한 이후 젊은 시절을 줄곧 동문회 일에 관여했었는데, 얼마 전 동기동창이며 8대 동문회장을 역임한 죽마고우 오세형 회장이 타계한 후 뭔가 새로운 삶의 색채로 남은 생의 여백을 채워야겠다고 생각했지."

Q. 아아 그렇군요. 정말 선배님같은 분이 계시기에 후배들에게도 희망이 보입니다. 오랫동안 선배님과 교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옛이야기부터 미래까지 선배님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A. "그래그래, 너무 고마워, 이렇게 선배라고 만나주고 대접해주니!"

정작 선배님에게는 이를 글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 아니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드린 것이다. 서초구약사회장을 역임한 필자에게 서초구 자선다과회에 그림을 출품하신다는 귀띔이 없으셨기에 나도 감쪽같이 시치미 떼고 만났다가 글을 쓰겠다는 보복심이 발동한 것이다. ㅎㅎㅎ!

선배님을 배웅하고 돌아오던 길, 옛날 노래가 문득 생각났다.

"Gone are the days when my heart was young and gay
Gone are my friends from the cotton fields at home…"

2014 전반기동문회소식

● 11월 15일
1회 동기회 모임

● 2월 11일
법인약국지지성금 1,300만원 기타

● 2월 18일
장학기금운영위원회의

● 2월 20일
명예교수간담회

● 2월 22일
여동문회 월례회

● 3월 21일
고문단회의

3월 29일
동문회 동기회장 및 시도지부회장 회의

4월 1일
2014년도 1학기 장학금수여식

4월 1일
약대교수 간담회

4월 27일
최종이사회

4월 15일
감사수감

7월 8일
제7차 회장단회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57차 정기총회

지난 5월 20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57차 (2014회계년도) 정기총회가 삼성동 서울컨벤션센터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는 장재인 회장과 김정호 사무총장을 위시한 현 회장단을 필두로 최종묵, 임완호, 유영후, 권혁구, 유정사, 윤대봉, 서국진 고문은 물론 한석원, 김구, 김창종 자문위원과 함께 이종각, 임영식 감사가 자리를 같이하여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총회의 무게중심을 잡아주었다.

학교 측에서는 중앙대 총동창회 박진서 회장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었고, 약대 서동철 학장과 한상범 학부장을 비롯하여 염정록 명예교수, 최영욱, 손의동, 한상범, 강원구 교수가 참석하여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산적한 현안문제들 일단 제쳐놓고 일찌감치 자리를 같이 했으며, 서울대약대여동문회 손인자 회장, 성대약대동문회 신충응 회장, 이대약대동문회 신성숙 회장, 숙대약대동문회 김순례 회장, 숙대약대개국동문회 윤복숙 회장, 덕성총동문회 조덕원 회장, 한국여약사회 서정숙 회장 등 내빈들이 우정 참석하여 총회의 의미를 배가시켜 주었다.

'동문들의 자부심으로 법인약국 투쟁성금 1,300만원 기탁!' '우리의 긍지로 키워낸 최고의 명예인 동문회 단합을 위해!'

장재인(17회) 회장은 모두 인사말을 통해 참석한 내외 귀빈들과 동문들에게 총회 참석에 대해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법인약국이라는 최대 현안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대한약사회에 1,300만원의 투쟁성금을 기탁하는 자부심을 세울 수 있었다"며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도와 상업화된 법인약국을 저지하는데 앞장서자"며 강한 어조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1년 남은 임기 동안 꼭 지켜나가고 싶은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중앙약학인'의 상징이 된 우리의 긍지로 키워낸 최고의 명예라고 할 수 있는 동문회의 단합이다"며 "동문회를 여러분과 집행부의 굳은 결속으로 이끌어 나가 자랑스러운 '약사르네상스'를 꽃 피우는데 앞장서자"고 호소했다.

조찬휘(15회) 대한약사회장은 축사에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책을 대한약사회가 수립하고 이를 지부, 분회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10년 후 약사의 운신 폭은 없을 것이다"며 "7천여 동문들이 앞장서 설득하고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중앙약대 동문회의 일보 전진을 위한 화합과 단결의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는 덕담으로 축사를 갈음했다.

중앙약대 서동철(23회) 학장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장학금 모금 덕분에 약학관 신축이라는 대역사가 가능했다"며 "새롭게 전개되는 기수별 장학기금 모금행사에도 동문 여러분의 힘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총회에서는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장학기금) 결산 심의와 2014년도 사업계획,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장학기금) 예산(안) 등이 모두 이의 없이 처리되었다.

이종각(13회) 감사는 "특히 법인약국 투쟁성금은 장재인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사비를 털어서 마련한 1,300만원을 '중앙대약대동문회' 명의로 기탁한 것으로, 우리 약대동문회의 위상을 높여준 성과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치하를 아끼지 않았으며, 또한 "앞으로도 모교에 우수한 후배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장학기금의 확충과 동시에 장학금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동문지부와 동기회, 특히 30회 이후의 동문회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당부한다"며 감사보고를 마쳤다.

수상자 명단

〈총장 공로패〉
- 서국진(13회) 전 동문회장
- 강희윤(22회) 전 여동문회장

〈학장 공로패〉
- 26회 동기회 [손영상 회장]
- 안양분회 [이상돈(22회) 회장]

〈총동창회장 공로패〉
- 조중형(18회) 백화점약국 대표
- 김중효(21회) 일동제약 기획조정실장
- 한갑현(26회)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동문회장 공로패 〉
- 선우일원(26회) 선우약국 대표
- 한봉길(27회) 안산고려약국 대표
- 김영미(34회) 참사랑약국 대표

26회 동기회
물방울장학금 전달

손영상 (26회)
회장

수적천석(水滴穿石)!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엔 돌에 구멍을 뚫는다'는 뜻으로 채근담에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물 한 방울이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냐마는 그것이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떨어진다면 무서운 힘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 것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동기들이 참 자주 만난 것 같습니다. 다른 선배나 후배 기수들도 활발하게 모임을 가지겠지만, 저희 26회가 유독 잘 모이고 또한 많이 참여한다고 소문이 났을 정도로 활성화 된 것에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만남이 거듭되던 어느 날 이 활성화된 기운을 바탕으로 학교에 작지만 지속적으로 기여할 일이 뭔가 있지 않을까하는 의견이 대두된 것입니다. 의례적으로 진행해 오던 입학 혹은 졸업 X주년 기념식에서 장학금을 기탁해 오기는 했지만, 미약한 물방울이 떨어져 세월이 지나면 큰 바위를 뚫듯이 작은 노력이라도 끊임없이 반복하다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차례 논의 끝에 26회 동기들이 함께 참여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장학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기투합 했습니다. 월 1만원이라는 작은 기부에 동기들이 뜻을 함께 한다면 큰 나눔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출발했습니다. 일사천리는 아니라고 해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26회 동기회 장학기금, 이름하여 '26회 동기회 물방울 장학금'이 탄생된 것이지요. 한 학기 2백만원씩 연간 4백만원을 후배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입니다. 중앙약대동문회 장학금 전달식에서 우리 동기들도 자랑스럽게 후배들 앞에 서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특유의 친화력과 솔선수범으로 동기회를 위해 굳은 일 마다하지 않던 최민규 동기를 비롯한 윤용혁, 김안식, 김학철, 이영준 전임 회장과 김유선 재무, 한갑현 총무에게 특히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26회 동기회 장학기금 프로젝트'가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8회 동기회
졸업2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임규리 (38회)
총무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준비했던 졸업20주년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고
이제 돌아보는 글을 시작하려다 보니,
훌쩍 지나간 시간들과 마치 20여년 전으로 돌아간듯한 마음으로
함께 웃으며 즐겁게 준비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참 고마운 동기들…
생각만으로도 미소가 절로 피어납니다.

2013년 12월…그때까지만 해도 정기모임은 남자동기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었고, 여자동기들은 친한 친구들간의 소모임이나 친목모임 등으로 따로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월 정기모임에 몇몇 파워풀한 여자동기들이 참석하면서 동기모임으로서의 본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졸업20주년 행사준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추진력 강한 믿음직한 회장과 발로 뛰는 알뜰한 총무를 선출하고 함께한 동기들은 한마음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을 약속했으며, 그 시작으로 90밴드를 활성화하여 의견수렴이나 공지창으로 활용하였고, 2월에는 90카톡방을 열어 친구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어색함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광수종 (윤광식,김수규,박종일) 3인방을 주축으로 단체카톡의 즐거움 속에 속속 친구들이 모이면서 많은 동기들이 함께 지난 시간의 공백을 서서히 지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20여년만의 만남이었지만 젊은 날을 함께했던 친구들이라 어색함은 곧 친근함으로 바뀌었고, 서로 안부를 묻고 학창시절을 추억하며 한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기 시

작하여 초대장 발송과 문자 전송을 위한 주소와 연락처를 정리함과 동시에 행사비용 및 동기회 발족의 바탕이 될 회비를 모으는 등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천 건이 넘는 톡들을 읽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동기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또 서로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재능기부를 통한 풍성한 아이디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또 바로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더웠던 늦은 봄날, 회장이 모든 동기들에게 카톡으로 아이스크림 선물을 보내주는 이벤트를 했고 능력 있는 동기들은 회비 납부 안내를 위한 애교 담긴 사진을 만들어줬으며, 90밴드에는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사진들로 넘쳐났습니다.

해외에 정착한 동기들도 회비 납부에 적극적이었으며,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회비를 납부하는 동기들이 늘어가면서 졸업20주년 행사를 향한 기대감은 고조되었습니다.

준비위에서 계획한 일들도 차례로 진행이 되어 동기회를 대표하는 근조기가 만들어지고 동기회 회칙도 다듬어져 완성되었으며, 2월, 4월, 5월 3번에 걸쳐 학교 앞에서 모여 세부적인 논의와 함께 행사 당일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비했고, 행사를 총괄할 담당자와 연락조를 꾸리고 기념사진과 생중계를 위한 장비팀, 급기야 공연팀까지 조직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 90은 이번에도 달랐습니다.

졸업20주년 행사의 캐치프레이즈를 'AGAIN 1994'로 정하고, 경건하고 딱딱한 기념식 보다는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그 노력들은 공연팀 '흑석동 날라리'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처음 춤을 접한 동기부터 기본기가 튼튼한(?) 동기까지 어우러진 흑석동 날라리들은 유튜브 동영상을 교과서 삼아 각자 집에서 혹은 약국 조제실에서 아침, 저녁으로 연습하여 동작을 맞추고, 스튜디오를 빌려 영상물까지 직접 제작하였으며, 행사당일 중대약대의 자랑 전설의 진생라딕스 싱어 이창은 동기의 보컬에 라이브 공연까지 소화해내는 등 이번 행사의 꽃으로 자리하였습니다.

그간의 노력들이 하나씩 빛을 발하기 시작한 0629 행사당일~!!!

기념식장엔 각계에서 보내주신 커다란 축하화환과 중대를 상징하는 청룡 얼음 조각도 위풍당당하게 자리했습니다. 윤상배 동기가 만들어준 우리들의 추억이 담긴 "슬라이드쇼"와 "약학개론 영상"으로 뜻깊은 졸업20주년의 기념식이 시작되었고, 이주희 동기의 그림과 함께 마련된 포토월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환하게 웃는 모습들을 담아내느라 분주했으며 실험반별로 지도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 또한 또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포토월 이벤트는 임향숙 동기의 제안을 박웅석 동기가 현실화 시킴으로서 생각만 하면 현실이 되는 90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는 뜻깊은 이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20여년이 지났지만 그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신 교수님들과 대한약사회장님, 동문회장님의 축하와 축사로 행사는 무르익어 갔고, 염정록 교수님의 현장 출석체크는 우리의 시간을 20년전 으로 돌려놓았으며, 38회동기회 이름으로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중대약대 동문회의 일원이 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91학번 후배들에게 청룡트로피를 전달하며 내년 행사의 성공을 바랐고, 식사후 이어진 2부공연에서는 교수님들, 내빈들, 졸업생들 모두가 함께 즐기는 행복한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앵콜곡 '무조건' 또한 여러모로 기억에 남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음향과 영상,스크린등 낯선 현장환경에서 아프리카 TV로 행사 생중계까지 하며 고군분투해준 박종일, 이주희 동기부부의 아낌없는 수고에 감사드리며, 학교 앞에서 이어진 2차자리까지 함께해주신 염정록 교수님과 서동철 학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한치의 오차없이 이끌며 쉼없이 달려온 38동기회 윤광식회장과 우리 38동기회 여러분 모두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보냅니다.

중대약대 90동기 및 38회 동기회 여려분~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최고의 회비납부율, 최고의 회비금액, 최고의 참석인원, 최초의 흑석동 날라리 댄스팀의 공연, 최초의 행사 생중계 등 최고, 최초의 역사를 창조했으며 그 역사의 주인공은 자랑스런 중앙대 약대 90, 38회 동기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를 빛내주셨던 한덕룡 교수님을 비롯한 명예교수님들과 서동철 학장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분들, 장재인 동문회장님을 비롯한 동문회 관계자 분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약계 선 · 후배분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38회 동기회를 위해 회비를 납부해주신 93명의 동기분들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같이한 모든 동기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투약봉투에 고객의 마음, 그림으로 담고 있죠"

삽화로 행복을 나눠주는 즐거운약국 김기명 약사

김기명 (18회)
편집위원장

"약봉투나 투약병 등에 고객의 표정이나 현재의 상황을 살린 그림을 그려주면 고마워 하더라구요. 그림이 그려진 약봉투를 보물처럼 보관하는 고객들도 많아요."

서울 서초구 즐거운약국 김기명 약사(64)는 약국을 찾은 고객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있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에 재주가 있던 그는 현재 지역주민에게 그림으로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97년 IMF가 터진 이후 서울시약사회에서 회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 꿈꿔왔던 재능을 세상에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김 약사는 이후 모 전문지에 만평을 게재하는 등 여러 언론을 통해 재능을 알렸다. 현재는 중앙약대 동문회보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자신만의 삽화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그는 지난 해 말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됐다. 약사사회의 화두였던 법인약국 반대운동을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그의 삽화를 살려보자는 제안으로, 대한약사회 이규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각본을 받게 되었다. 이 위원장의 각본을 받은 그는 일주일이라는 작업을 통해 법인약국의 폐해를 담은 9장의 삽화를 그

려냈다. 삽화는 최근 열린 서초분회 자선다과회에서 첫 공개돼 약사뿐만 아니라 관계 정부기관 및 단체들에게 법인약국 반대의 목소리를 알렸다.

"최미영 서초분회장의 의지로 다과회에서 전시하게 됐어요. 열심히 하는 집행부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적극 참여했죠. 물론 이번 삽화작업은 처음부터 자선다과회에 출품하고자 그린 것은 아니에요. 법인약국의 위험성을 제대로 홍보하는데 사용하도록 약사회에 기증했어요. 앞으로 있을 행사에서 용이하게 쓰이도록 했죠."

법인약국에 대해 김 약사는 현세보다는 후세에 나타날 수 있는 커다란 난제로 인식하여 시작을 잘 풀어놔야 한다고 봤다. 쌓여가는 공기업이나 지자체의 부채가 큰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오듯 법인약국도 졸속으로 서둘러 진행될 경우 후세에 틀림없이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삽화는 법인약국과 같은 이슈에 대한 약사와 약국의 지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연결통로로 활용하면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게 그의 믿음이다. 이해하기 쉽고 편안하게 다가서는 방법 중 하나라는 뜻이다.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30년 전 가야병원에서 약국장으로 근무할 때 상업미술계의 유명 시각디자이너였던 친구의 권유가 다시금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게 된 발단이 된 것 같아요. 분노와 걱정, 기쁨과 환희 등 세상의 다양한 현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열정을, 그 친구가 일깨워준 거죠. 삽화는 자신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끈이죠."

그는 향후 만평 등 자신의 삽화를 원하는 그 어떤 곳이 됐든 기고 등을 통해 꾸준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약사회에서 좋은 기획으로 그림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응할 것을 약속했다.

"일상생활을 담는 일기와 같이 나만의 삽화는 혼자의 것을 넘어 함께 하는 그림으로 살리고 싶어요. 후배약사 등 전문약사들도 숨겨놓은 많은 재주들을 살려 좀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해요. 각박한 삶의 오아시스로 자신의 능력을 펼쳐보면 약사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게 되죠.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처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솟아날 수 있어요. 약국은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니 더욱 유쾌할 수 있겠죠."

김 약사는 약국에 근무하는 내내 약국을 찾은 아이들에게는 콧물 흘리는 아이의 모습을, 부부싸움을 한 어른들에게는 화내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을 약봉투에 그리며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다.

한편 김기명 약사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서초분회 분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 본 기사는 2014년 5월 22일자 약사공론에 게재된 엄태선 기자의 기사를 전재한 것입니다.

항생제의 종류 (1)
– 세균(bacteria)의 족보를 찾아서 Ⅲ

| 편집위원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항생제 (antibiotics)란
여러 가지 병원성 미생물 중에서 세균 (bacteria)이 유발하는 각종 감염증에 적용하는 약으로,
이번에는 임상에서 다양하게 처방되고 있는 각종 항생제들의 종류와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균에 대한 작용방식에 따른 분류

항생제를 분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세균에 대한 작용방식에 따른 분류, 즉 살균성 항생제와 정균성 항생제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살균성 항생제 (bactericidal antibiotics)란 주로 세균의 보호막인 세포벽 합성을 저해함으로써 약화된 세포막이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 압력을 이기지 못해 파열되도록 하여 세균을 용해(용균)시켜 버리는 항생제를 말합니다.

보통 MIC와 MBC의 차이가 2-4배 정도로 크지 않으며, 대표적으로 penicillin과 cephalosporin을 포함하는 β-lactam계 항생제를 위시하여 aminoglycoside, glycopeptide 및 최근 들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quinolone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 장기간 입원환자나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 등 숙주의 방어기전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살균성 항생제를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균성 항생제 (bacteriostatic antibiotics)는 세균 증식에 필요한 단백합성을 저해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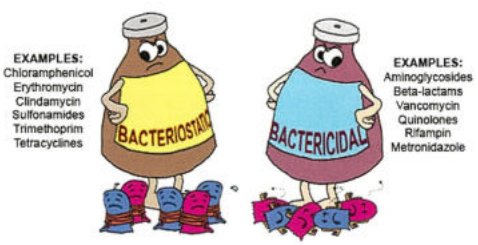


그림 1. 살균성 및 정균성 항생제

발육을 억제하고 증식을 저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세균을 처리하는 것은 숙주의 방어체계, 즉 백혈구나 대식세포의 식균작용(phagocytosis)에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숙주의 방어기전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라면 당연히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보통 MIC와 MBC의 차이가 16배 이상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인 광범위항생제인 chloramphenicol이나 tetracycline을 포함하여 macrolide 및 sulfa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항균범위에 따른 분류

이어서 항생제가 효력을 미치는 항균범위, 즉 스펙트럼(spectrum)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항생제요법의 주 대상이 되는 세균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항생제의 종류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임상에서는 한 가지 약으로 다양한 종류의 균을 처리할 수 있는 소위 광범위항생제가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만 일반적인 항생제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특정한 원인균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범위 항생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광범위 항생제 (broad-spectrum antibiotics)라 함은 대부분의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을 모두 억제할 수 있는 항생제를 의미하며, 중간범위 항생제 (medium-spectrum antibiotics)는 그람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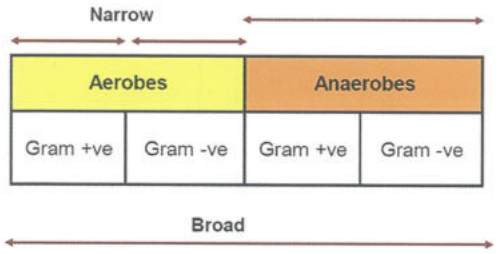


그림 2. 항균범위에 따른 항생제의 분류

성균의 대부분과 그람음성균 일부를 억제하거나 그람음성균의 대부분과 그람양성균의 일부를 억제함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협범위 항생제 (narrow-spectrum antibiotics)는 그람양성균 혹은 그람음성균 어느 한쪽에만 주로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 난치성 세균의 대표라 할 수 있는 MRSA에 대해 사용하는 vancomycin 같은 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작용기전에 따른 분류

이제 본격적으로 항생제가 실제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사멸시키는 작용기전(mechanism)을 기준으로 항생제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항생제를 그 작용기전에 따라 첫째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는 제제, 둘째 세균의 단백합성을 억제하는 제제, 셋째 세균의 핵산대사를 억제하는 제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균의 증식에 필수적인 엽산 합성을 억제하는 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로는 β-lactam계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포함)와 glycopeptide계 항생제가 있는데, 세균의 보호막인 세포벽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살균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정상적으로 세균이 증식하려면 세포질 내에서 끊임없이 단백질이 합성되어 공급되어야 하는데, 주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리보좀에 작용하여 가역적으로 단백합성을 저해함으로써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로는 aminoglycoside를 비롯하여 macrolide, chloramphenicol, tetracycline계 항생제 등이 있습니다.

세균의 DNA 복제과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세균의 증식을 저해하는 약물이 바로 quinolone 계통의 합성 항균제입니다. 또한 세균이 자체적으로 합성하여 증식에 이용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인 엽산 (folic acid) 합성을 저해함으로써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로는 sulfa제와 trimethoprim이 있는데, 각기 다른 대사과정을 저지하기 때문에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은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화학구조에 따른 분류

β-lactam	penicillin; cephalosporin; monobactam; carbapenem
aminoglycoside	streptomycin, neomycin, kanamycin, gentamicin
macrolide	erythromycin, azithromycin, clarithromycin
tetracycline	tetracycline, oxytetracycline, minocycline
chloramphenicol	chloramphenicol
glycopeptide	vancomycin, teicoplanin
quinolone	norfloxacin, ofloxacin, ciprofloxacin, levofloxacin

표 1. 화학구조에 따른 항생제의 분류

마지막으로 현재 임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들을 화학구조에 따라 분류하고 그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항생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β-lactam계 항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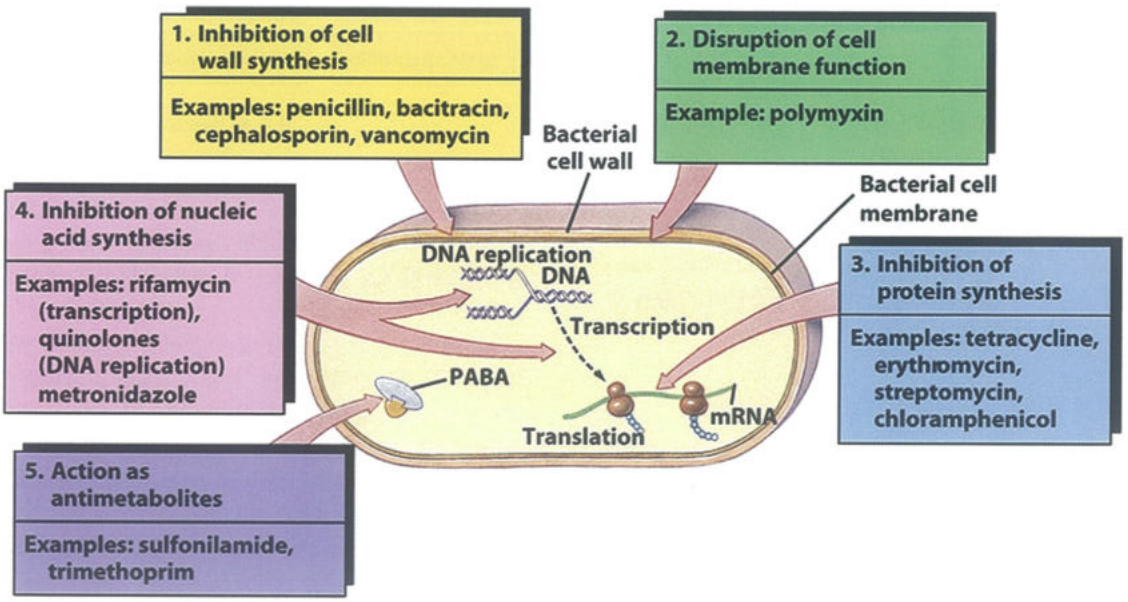


그림 3. 작용기전에 따른 항생제의 분류

제로 그 화학구조상 베타락탐 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구체적으로는 penicillin과 cephalosporin을 비롯하여 monobactam, carbapenem이 포함되며, 최근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ß-lactamase 저해제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minoglycoside계 항생제로는 최초로 개발된 streptomycin을 비롯하여 neomycin, kanamycin, gentamicin 등이 있습니다.

Macrolide계 항생제로는 오랫동안 호흡기감염증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어 온 erythromycin을 위시하여 최근에 개발된 azithromycin, clarithromycin 등이 포함이 됩니다.

광범위항생제의 효시인 tetracycline과 chloramphenicol은 지금은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MRSA를 주 표적으로 하는 glycopeptide에는 vancomycin과 teicoplanin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quinolone계 합성항균제에는 norfloxacin, ofloxacin, ciprofloxacin, levofloxacin, moxifloxacin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ß-lactam계 항생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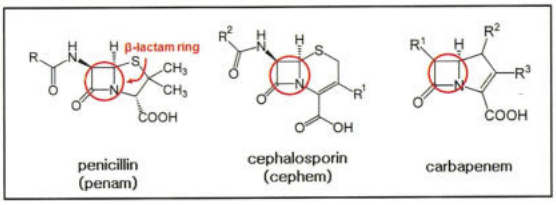


그림 4. 베타락탐계 항생제의 구조

ß-lactam계 항생제는 그 화학구조상 공통적으로 ß-lactam ring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일 먼저 개발된 penicillin계통은 다시 천연 penicillin, penicillinase저항성 penicillin 및 항균범위와 항균력이 확대된 aminopenicillin, carboxypenicillin, ureidopenicillin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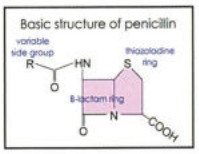
현재 임상에서 가장 널리 처방되고 있는 항생제의 하나인 cephalosporin은 개발시기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및 4세대 제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일의 ß-lactam ring을 가지고 있는 monobactam에는 aztreonam, carumonam 등이 포함되며, 호기성 및 혐기성균에 대해 모두 항균효과를 보이는 carbapenem에는 imipenem, meropenem 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또한 ß-lactam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내성균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ß-lactam제와 clavulanic acid, sulbactam, tazobactam 등의 ß-lactamase 저해제를 배합한 제제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 페니실린계 항생제 (penicillin)

새로운 항생제의 시대를 열게 한 페니실린은 1928년 영국의 Fleming이 세균 배양 도중 한 천배지에 오염된 푸른곰팡이 Penicillium notatum에 의해 그 주변에서 세균의 성장이 억제되는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우연히 발견하게 된 기적의 약물로, 1941년 상용화에 성공한 이래 감염증으로 고통 받고 있던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분류	살균성 항생제
작용기전	세균의 세포벽 합성 저해
임상	G(+)균에 있어서 항균력과 안전성에 대한 표준약제로 인정받아 왔으며, G(-)균이나 혐기성균까지 항균범위가 확대되었지만 높은 내성 발현률 때문에 사용 제한
부작용	피부발진, 발열, 설사, 과민반응(페니실린 쇽)

그림 5. 페니실린계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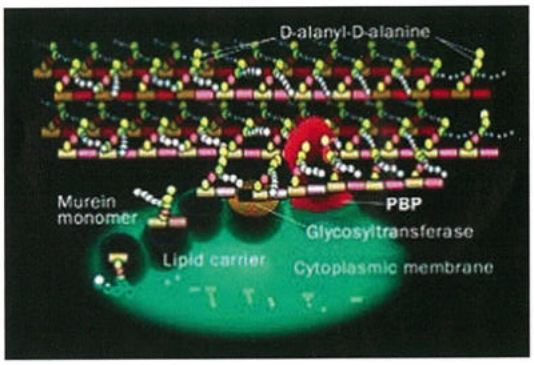


그림 6. 페니실린결합단백 (PBP)

천연 penicillin	penicillin G, penicillin V
penicillinase 저항성 penicillin	methicillin, oxacillin, cloxacillin, dicloxacillin
aminopenicillin	ampicillin, amoxycillin, bacampicillin, talampicillin
carboxypenicillin	carbenicillin, sulbenicillin, ticarcillin
ureidopenicillin	piperacillin, azlocillin, mezlocillin

표 2. 페니실린의 종류

대표적인 살균성 항생제로 세균의 세포벽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페니실린결합단백(PBP; penicillin-binding protein)과 결합하여 그 활성을 저해함으로써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임상에서는 오랫동안 G(+)균에 있어서 항균력과 안전성에 대한 표준약제로 인정받아 왔으며, 지금은 녹농균을 포함한 G(-)균이나 혐기성균까지 항균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오랜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내성 발현률을 보이고 있어 사용이 제한되는 추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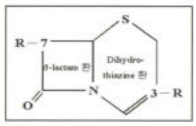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부작용은 피부발진, 발열, 설사 등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드물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성 과민반응인 페니실린 쇽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면 천연 penicillin으로 최초로 개발된 주사용 penicillin G에 이어 경구용 penicillin V가 개발되었으며, 내성균이 증가함에 따라 내성균이 생성하는 penicillinase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methicillin을 필두로 oxacillin, cloxacillin, dicloxacillin 등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어 그람음성 간균에까지 항균력을 확대시킨 aminopenicillin인 ampicillin이 등장했으며, ampicillin의 흡수율을 더욱 증가시킨 amoxycillin이 개발되었고, 녹농균을 포함한 그람음성균에 대한 항균력이 뛰어난 carboxypenicillin류의 carbenicillin, sulbenicillin 및 항균력이 더욱 강화된 ureidopenicillin류인 piperacillin, mezlocillin 등이 속속 개발되었습니다.

–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cephalosporin)



분류	살균성 항생제
작용기전	세균의 세포벽 합성 저해
임상	G(+)균 및 G(-)균에 광범위하게 작용하며 혐기성균에 대해서도 항균력을 나타냄
부작용	피부홍반, 출혈경향, 간기능장애, 설사

그림 7. 세팔로스포린의 특성

반세기에 가까운 항생제 개발의 역사에서 항균작용은 더욱 우수하고 바람직한 약리학적 특성을 지니면서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제제를 목표로 개발된 것이 cephalosporin계 항생제로 penicillin과 유사한 작용기전을 가지는 살균성 항생제입니다.

1945년 이태리의 Brotzu 교수가 Cephalosporium acremonium으로부터 추출하였습니다.

Cephalosporin 역시 penicillin과 유사하게 세균의 세포벽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페니실린결합단백 (PBP; penicillin-binding protein)과 결합하여 그 활성을 저해함으로써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기에 개발된 제제들이 주로 그람양성균에 강력한 효과를 나타냈으나,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제제들은 그람음성균에 의한 감염증에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2세대의 경우 혐기성균에도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흔한 부작용은 과민반응으로 나타나는 피부홍반이나 가려움증이 있으며, 혈액학적 이상으로 출혈경향이 생길 수도 있으며, 간혹 간기능장애와 설사도 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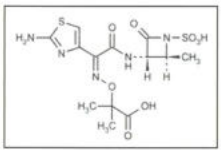
Penicillin과는 달리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드물다고 하지만, penicillin 과민반응이 있던 환자의 5-15%는 cephalosporin에도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Cephalosporin은 기본 골격인 cephalosporin C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화학구조를 조금씩 개량해 가면서 현재까지 수많은 유도체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에 개발된 cephalothin, cefazoline 등의 1세대는 그람양성균에 대해서는 항균력이 뛰어나나 그람음성균에 대해서는 항균력이 떨어지며, cefaclor, cefoxitine 등의 2세대는 1세대에 비해 그람음성균에 대해서는 항균력이 강화된 제제들입니다.

Cefotaxime, ceftriaxone 등의 3세대는 그람양성균에 대해서는 1세대 보다 항균력이 약하지만 녹농균 등의 그람음성균에 대한 항균력이 훨씬 강화되었으며, cefepime, cefpirome 등의 4세대는 세포막 투과성이 뛰어나고 β-lactamase에 대한 안정성이 강화되어 그람양성균은 물론 그람음성균에 대한 항균활성이 큰 반면 혐기성균에 대해서는 오히려 항균력이 떨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모노박탐계 항생제 (monobactam)



분류	살균성 항생제
작용기전	세균의 세포벽 합성 저해
임상	Aminoglycoside와 유사하게 그람음성 호기성균에 좋은 항균력 보임
부작용	피부반응, 피부발진, 오심, 구토, 설사
제제	aztreonam, carumonam

그림 8. 모노박탐계의 특성

β-lactam계 항생제 중 특이하게 단일의 β-lactam ring을 가지고 있는 monobactam은 천연산물 그대로는 항균력이 약해 기본구조에 여러 가지 기 (radical)를 치환함으로써 항균력을 강화시킨 제제로 aztreonam, carumonam 등이 있습니다.

다른 β-lactam계와 같이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저해하는 살균성 항생제로, 그람양성균이나 혐기성균 보다 그람음성균의 PBP와 결합력이 좋고 세포외막 투과성도 양호하여 그람음성 호기성균에 좋은 항균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3세대 cephalosporin에 비해 항균범위가 좁은 편이며, aminoglycoside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부작용 없이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주사부위 피부반응, 피부발진과 함께 오심, 구토 및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β-lactam 제제에서 비교적 흔히 나타나는 혈액학적 이상이나 간기능 이상이 드물게 발생하며, 신기능장애도 매우 미약하게 일으키므로 penicillin이나 cephalosporin에 과민증을 보이는 환자에게 사용하거나, aminoglycoside를 대신해서 투여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 올레여!

지난 4월 30일~5월 7일 연휴를 최대한 활용하여 친한 후배와 단기간 내 제주 올레길 완주에 나섰으나,
엄연한 현실의 벽 앞에서 만용을 부릴 나이가 아니라는 통렬한 반성을 뒤로 하고 중도에 뜻을 접었다.
'끊어진 길을 잇고, 잊혀진 길을 찾고, 사라진 길을 불러내어 띄엄띄엄 찍는 점의 여정이 아니라
그 점들을 이어가는 긴 선의 여행' 이라는 올레의 철학을 애써 무시하려던 (**미안하다, 올레여!**)
철없는 젊은 오빠 둘이 '느릿느릿한 게으름뱅이'라는 의미를 지닌
올레의 상징 조랑말인 '간세'에게 몹시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는 현실의 세계로 복귀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레길의 철학적 배경이며 코스의 의미며 숨어있는 스토리에 더해
제주 특유의 오름이나 바다의 숨막히는 풍광을 느낀 소감이라면 애정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잘 정리해 놓았을 테니
편년체식의 지루한 여행 감상문은 예의가 아닐 것이다.
다만 매 끼니마다 다른 음식 맛보기라는 유치찬란한 기치를 살짝 앞세워
사실은 일주일 동안 200km 남짓한 거리를 정말 힘들게 걷고 또 걸었다는 무용담을 애써 억누르기로 한다.

박희용 (23회)
편집위원

[전체 일정]

1일차 (4/30) : 올레 1코스 (시흥~광치기 올레; 15.6km)
2일차 (5/1) : 2코스 (광치기~온평 올레; 14.9km),
3코스 (온평~표선 올레; 20.7km)
3일차 (5/2) : 5코스 (남원~쇠소깍 올레; 14.1km),
6코스 (쇠소깍~외돌개 올레; 14km)
4일차 (5/3) : 7코스 (외돌개~월평 올레; 13.3km),
8코스 (월평~대평 올레; 19.2km)
5일차 (5/4) : 9코스 (대평~화순 올레; 7.1km),
10코스 (화순~모슬포 올레; 15.1km)
6일차 (5/5) : 11코스 (모슬포~무릉 올레; 17.3km),
12코스 (무릉~용수 올레; 18.1km)
7일차 (5/6) : 한라산 등반
(성판악~백록담~관음사; 18.3km)

들어가는 말

애당초 그 후배의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었다. 회사가 5월 1일부터 6일까지 몰아서 연휴를 준 것도 빌미가 되긴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휴가를 가보지 못했던 것을 핑계로 한 번 떠나보자는데 의기가 투합했다. 하나의 원칙은 둘 다 지금까지 살아온 성향상 느긋한 휴식여행은 성에 안차고 세파에 찌들어 게을러터진 몸을 한번 제대로 학대(?)해 보자는 것이었다.

열흘 정도 약간 무리해서 걸으면 제주 올레 26개 전 구간 425km중 곁가지(18-1 추자도, 10-1 가파도 등) 5개 코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21개 구간을 주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매불망 촌놈들 로망인 바다 원 없이 보면서 제주 외곽을 거의 한 바퀴 돌 수 있으니 이번에야말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before & after (혹은 도상연습 대 실제상황)

공식 연휴에 며칠의 휴가를 더해 4월 30일~5월 10일의 일정을 확보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말 꺼내기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간만의 휴식이 꼭 필요하다는 주변 인식에 더해 긴 사설로 양해를 구하는 것과 거리가 먼 평소 성질 사나운 심사를 회사에서 그냥 받아준 탓이 아닐까 싶다.

사전 도상연습 결과는 명쾌했다. 가는 날인 4월 30일 제주공항에 도착하면 간단히 점심 먹고 1코스 걷고, 5월 1일부터 9일까지 순차적으로 매일 2코스를 기본으로 컨디션 좋은 날 하루만 3코스를 주파하고는 오는 날인 5월 10일 서둘러 21코스를 마지막으로 가뿐하게 걸은 후 저녁 비행기로 올라오면 끝! (유단자인가?)

집사람 해외출장 중이라 그 절친인 J&J 시스터즈와 고교동창 L의 요란한 환송회를 뒤로하고 호기롭게 올레길 공략에 나섰지만, 실제상황은 그러나 우리 편이 아니었다. 하루 2코스 자체가 아주 무리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며칠간 누적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였으며, 3-4일 걸어본 결과 체력저하와 함께 올레길 이정표의 시작과 끝인 파란색과 주황색의 리본을 인식할 수 없어 해가 지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더하니 하루 30km정도를 넘으면 무리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후반부의 제법 긴 코스들이 남았음을 감안하면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보고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봐도 최소한 1개 코스를 못 걷거나 혹은 다 걷기에는 하루정도가 모자란다는 안타까운 답 앞에 가슴이 저려왔다. 하루정도 연장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론 안 된다. 정말 어렵게 확보한 심리적 마지노선에 하루를 추가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다.

후배에게 따졌다, 이 기간에 완주가 가능하다고 누구에게 들었냐고? 마라톤 풀코스 수십 회 완주에 사이클이며 패러글라이딩 등등을 아우르던 전력을 알고 있었지만, 큰 사고 후 어쩔 수없이 우리 같은 평범한 수준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후배의 대답은 그러나 허를 찔렀다. 후배 왈 "형, 울트라마라톤 동호회 지인들에게 들었지!"

제주도에 많은 것은?

- 제주의 반은 펑이 점령했고

삼다도 (三多島) 제주에는 여전히 돌과 바람이 많았지만, 올레 코스가 도심이 아닌 한적한 외곽으로만 돌다보니 여자는커녕 사람 자체를 보기가 쉽지 않았다. 생각건대 황금연휴이고 워낙 유명세를 탄 올레길이라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웬만한 산이면 미어터지는 인파에 시달리던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를 거의 축복처럼 호젓함이 위로해 주었다.

온갖 새소리가 인적 없는 올레길 전체를 호사스럽게 채워준 위에 어디서나 펑이 푸드득 날아다녔다. 마치 제주도 전역을 네트워크화 한 듯 거의 전 코스에서 물샐틈없이 앞뒤로 우리를 호위해 주었다. 심지어는 6일차 모슬봉 공군 레이더기지 올라가는 산기슭에서 펑 세 마리가 지척에서 '편대비행'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할 말을 잃기도 했다.

'느릿느릿한 게으름뱅이'라는 의미의 조랑말 '간세'가 제주 올레의 상징이 될 만큼 여기저기 방목되거나 사육되는 말이 제법 많았고 그 숫자만큼 말똥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이름 모를 오름 정상에서 내려다 본 저절로 탄성이 나오는 경치 앞에 바람결에 실려 오는 향긋한 말똥 냄새는 조연이 아니라 주연의 그것이었다.

또 한 가지 예상치 못한 광경은 지나가다 보면 거의 방치되다시피 버려진 무우며 감자가 수없이 많았다는 것이다. 채산성이 안 맞은 것인지 지력 향상을 위해 일부러 내버려 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발길 닿는 곳마다 차일 정도로 널려 있었다. 마치 메밀꽃처럼 온 밭을 가득 채우고 있던 하얀 무우꽃의 장관이여!

- 나머지 절반은 중국인들이 점령했더라

시선을 달리하여 도로가 잘 닦여있고 접근성이 좋은 유명 관광지를 지나가는 코스에는 어김없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활보하고 있었고, 호텔이나 제법 괜찮은 콘도며 리조트도 예외 없이 중국인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며 내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한 현실에서 현지 주민들로서는 여간 반가운 게 아닌 것이 당장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택시기사나 가게 주인들의 걱정은 당장은 쓸모없는 땅을 묻지도 않고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뜨내기손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제주 최고층 호텔이며 헬스케어센터, 대규모 쇼핑몰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실체가 바로 중국 자본으로, 몇 년 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국적 항공편으로 입국해서는 중국자본이 투자한 시설에서 먹고 자고 쇼핑하고 이동하게 된다는 의미로 연결되었다.

이름깨나 알려진 관록 있는 식당들이 관광객 상대의 왁자지껄한 장사를 하는데 길들여져 가는 모습에 제주 원주민들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어렵사리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의 맛을 찾아 뒷골목을 헤매고 있다는 탄식이 한라산 순한 소주에도 참이슬 빨간딱지에도 진하게 배어 있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다시 생각해 봐도 우리가 걸은 올레길 어디고 사람들이 붐비지 않았음은 그 자체가 축복이었다. 단 한시도 내버려두지 않고 서라운드 돌비 시스템으로 주변을 맴돌던 온갖 새소리는 단연 압권의 보너스였다.

그런 와중에 잊어버릴 만하면 마주치는 올레꾼들은 물론 둘이서 혹은 몇 명 단위가 아주 없지는 않았으나 거개가 혼자서, 그것도 여성 혼자인 경우가 압도적이었다.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지 모르지만 남성들의 경우도 예외 없이 혼자서 외로움과 벗하며 걷고 또 걷는 모습이 태초의 길 모습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조차 했다.

첫 날은 고즈넉이 걷는 모습이 너무 여유롭게 보여 자칫 방해될까봐 가벼운 눈인사도 자제했다. 그러나 이틀 삼일이 지나며 '아하 이게 만만한 코스가 아니구나'하는 자각이 들면서 비로소 저렇게 가볍게 걷고 있는 듯한 모습 뒤에 우리처럼 힘든 일상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동병상련의 정을 깨우치는 순간 짧지만 진한 애정이 담긴 인

사를 나눌 수 있었다.

바쁘면 바쁜 걸음으로 느긋하면 느린 걸음으로, 누구는 세련된 아웃도어로 완전무장한 채, 혹자는 색바랜 잠바에 우산을 지팡이 삼아 저마다의 생각을 화두로 뜨는 해를 바라보거나 구름 사이로 물드는 저녁노을을 등 뒤에 지고 걷고 또 걷는 모습들에 '내가 왜 이 여행을 떠났나'하는 물음은 큰 의미가 없었다. 왜 사느냐 묻거든 그저 걷기 위해서라고 답하면 그만!

첫날 첫 코스 시작점에서 만난 할머니 세분을 생각하면 슬며시 미소 짓지 않을 수 없다. 성산 쪽에 있는 올레 전체 코스의 상징적인 시작점 시흥초등학교를 찾아갔으나, 번듯한 조형물이나 북적이는 인파대신 오수에 졸고 있는 듯한 전형적인 시골 초등학교의 모습에 일순 당황하기조차 했다.

이제부터 오로지 밥심으로 걷고 또 걸어야 하는데 시작부터 굶을 수는 없는 법, 출정식 어쩌고 할 식당은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고 어찌어찌하여 간판도 없는 작은 구멍가게를 찾았다. 구순이 넘은 주인 할머니와 마실 온 할머니 두 분이 담소를 나누고 계셨는데, 서울에서 온 촌놈들 컵라면 먹게 물을 좀 끓여 달라는 부탁에 그 연세에도 오늘 노인회 점심 당번이라 마을회관 가야해서 곤란하다며 꽃다운 처녀적의 웃음을 흘리셨다.

마냥 같이 웃을 형편이 아닌지라 결국 그 흔한 바나나우유도 없이 초코파이와 양갱과 뭐 평소 잘 쳐다보지도 않던 무슨 깡 같은 걸로 간신이 점심을 때울 수밖에 없었다.

2일차 오후 3코스 온평에서 표선으로 가는 길에 중간 스탬프 확인점인 두모악 김영갑 갤러리가 눈에 들어왔다. 오직 앞만 보고 걷기로 한 몇 가지 원칙 중 하나를 이번에는 깨기로 하고, 사진에 대한 일가견은커녕 증명사진조차 한 장 변변하게 없는 주제를 무릅쓰고 제주와 아무 연이 없던 사람이 루게릭병으로 죽어가는 순간까지 셔터를 눌렀다는 그 사진 몇 점은 끝내 봐야만 했다.

죽을힘을 다해, 그러나 심연 깊은 곳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이 솟아오르는 그 어떤 힘에 의해 평생을 천착해 온 제주 풍경이 예사롭게 다가올 수는 없었지만, 어느 오름 앞에 선 피사체가 된 작가의 슬프지만 무심한 듯 맑은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점이 뭔가 고뇌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나그네의 마음을 순식간에 편안하게 해주었다.

무지함을 무릅쓰고 고백하자면, 섬이고 바위고 고깃배고 어떤 비례나 대칭이나 구도나 뭐 그렇고 그런 이야기 다 빼고 그냥 파란 바닷물에 정면으로 카메라 들이대고 찍은 사진 한 점이 가슴 시리도록 다가왔다. 저런, 시퍼런 바닷물에 카메라를 들이대다니!

4일차 정오쯤 연속적인 발파음을 배경으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울타리를 따라 걷는 코스로 접어들었다. 어찌되었건 공사장 출입구의 문신부님을 먼 배경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경찰병력에 둘러싸인 채 젊은 사제를 포함한 네 명의 단출한 인원이 미사를 드리고 있었다. 외항 방파제는 눈의 띄게 진도가 나간 상태였고 거대한 크레인의 움직임은 쉴 새가 없어보였다. 구럼비 바위의 눈물이 장차 어떤 의미로 재해석될 지를 생각하며 걷는 도중 계속 꺼놓았던 휴대폰을 열고 L형에게 문자를 보냈다.

5일차 저녁, 소위 도미토리라고 하는 복층 침대구조를 가진 게스트하우스에 여장을 풀었다. 노친네 무작정 걸으러 떠나는 게 못내 못미더웠던 집사람 친한 친구가 같은 절에 다니는 도반의 초등학교 친구인 주인장을 소개시켜주어 연결된 터라 혹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중년들을 위해 4인 구조의 방을 둘이서만 쓰도록 친절을 베푼 터였다.

아뿔싸! 그러나 게스트하우스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었다. 샤워실 문을 여는 순간 키 높이의 칸막이를 두른 샤워부스는 역시 그런 구조의 화장실과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형태로, 편하게 비누칠은커녕 방귀소리조차 마음대로 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투숙객은 모두 젊은 여성들뿐이었으니까!

게스트하우스라니, 그냥 민박이라고 했으면 마음 자세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다. 이전 학창시절 또는 사회 초년병일 때의 배낭여행을 되새김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나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매 끼니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어 보자

– 라면 없이 생존할 수 있었을까?

절반의 완성인 이번 여정이 그 절반이나마 성공한 배경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잠 푹 자고 먹는 것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는 후배의 결정이 든든히 자리 잡고 있었다. 2박3일 이라면 거꾸로 매달아도 잘 수 있고 어떤 거친 음식도 이겨낼 자신이 있다는 의욕이 앞섰으나, 50대 중후반의 머리 어느 정도 벗겨지고 인격의 아랫배가 한국 표준치만큼 나온 처지에, 더군다나 열흘 이상을 중노동에 시달리려면 확실히 믿을 것은 밥심 밖에 없지 않은가?

그리하여 이번 여정의 양보할 수 없는 한 축은 매 끼니 다른 음식을 맛보자는 것이었지만, 언감생심 우리의 미각기행은 첫 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더라.

상징적인 1코스 출발점에서부터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컵라면 끓일 물도 구하지 못해 초코파이와 양갱으로 출정식을 치르고서는 오후 3시나 되어 1코스 중간 스탬프 확인점인 목화휴게소에서 오징어 듬뿍 넣고 청양고추로 조미한 해물라면으로 겨우 혈색을 되찾을 수 있었다.

본의 아닌 라면 사랑은 계속되어 2일차 아침 식당 오가

는 시간이라도 줄여 조금이라도 걸을 시간을 더 확보하려다보니 역시 숙소에서 컵라면으로 때울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여정 마지막 날 한라산 등반길까지 연결되어 선택의 여지없이 백록담을 목전에 둔 진달래밭 광장 대피소에서 1인당 2개 한정으로 판매하는 컵라면을 줄을 서서 경건하게 받아 올 수밖에 없었다. 양갱으로 겨우 간을 맞췄다고나할까.

- 성산포구 홍삼과 표선 흑돼지 모듬구이

어두움이 있으면 밝음이 있다 했던가? 1코스 가뿐히 해치우고 2코스 진행하기 전 성산포구 근처 해녀의 집에서 나이든 해녀들이 내놓은 어린애 팔뚝만한 홍삼 (일반 해삼과는 달리 실제로 색이 검붉다)은 전 일정 내내 우리를 지켜준 보양식이 되었다고 장담한다. 치아 부실로 올곧게 씹지도 못했지만 드디어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묘한 설렘과 첫 코스를 무사히 완주했다는 안도감에 더해 한라산 순한 소주의 절묘한 마리아주가 우리를 달래주기에 충분했다.

1코스 종착지 온평포구 간이매점에서 준치 (경상도에서는 피대기라고 부르는 반건조 오징어) 널어 말리기에 여념이 없던 주인아저씨를 돕다가 틈틈이 식사를 챙겨주시는 아주머니의 전복뚝배기 점심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며, 저녁으로 선택한 휘닉스아일랜드 입구 해물마당의 갈치구이와 '오분작뚝배기'가 비로소 잠들어있던 미각세포를 깨워 제주 여행의 참맛을 확인시켜 주었다.

2코스와 3코스를 내쳐 걸은 이틀째 종착지는 표선 포구. 만조 때라면 해안선을 따라 한참을 돌아갔을 길을 맨발로 백사장 가로질러 폼 잡으며 도착한 식당의 흑돼지 모듬구이는 주인아주머니의 나그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왜 제주의 대표 음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맛으로 기억시켜주기에 충분했다.

3일째 아침, 누적된 피로에 벌써 여기저기서 아우성치는 물집 터트려 겨우 진정시키고 정신없이 나서 점심 무렵 도착한 5코스 종착지 쇠소깍에서 잠시 벗어나는 지점의 식당에서는 제주에서 반드시 먹어보아야 한다고 귀아프게 들었던 자리물회를 운 좋게도 이제 막 시즌 시작이라는 덕담과 함께 질리도록 맛보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

내친 김에 6코스 외돌개까지 주파하고 맞은 저녁에는 택시기사들이 강력 추천하는 서귀포 시내의 유명한 맛집 '기다리는 집'에 들렀으나 이름값 하느라 30분은 족히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미련 없이 '삼보식당'으로 옮겨 전복구이와 성게미역국으로 지친 몸을 마음껏 위로한 끝에 보너스로 흑돼지 김치찌개까지 깨끗하게 해치웠다.

- 두툼한 회가 밥보다 많았던 풍림 회덮밥

4일째 아침, '먹는 양에 비례해서 걸을 수 있다'는 주문을 되뇌며 토스트와 계란후라이와 베이컨과 감귤주스와 뭐 그런 저런 뷔페 음식으로 배를 입추의 여지없이 빵빵하게 채운 후 물집에 테이핑에 파스로 중무장한 몸을 다시 올레길에 올려놓는다.

전체 제주 올레길에서 가장 풍광이 뛰어나 관광객들이 최고로 선호한다는 7코스는 출발지 외돌개에서부터 단 한 순간도 바다에서 눈을 떼게 할 수 없는 압도적인 비주얼을 선사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자체가 행복했다.

중간 스탬프 확인점 풍림 바닷가우체국 근처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횟집에서는 배고픈 우리네 사정은 아랑곳 않고 수족관에서 생선 꺼내다가 뭔가 부족하면 근처 가게에서 사오기도 하며 애를 바짝바짝 태우더니, 막상 회덮밥에 밥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살아있는 질감의 그 두툼한 횟감의 주체할 수 없는 맛에 순식간에 무장해제 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역시 하루 2개 코스를 끝낸다는 원칙아래 8코스까지 주파한 저녁 대명포구 명물식당의 고등어구이와 옥돔구이는 생각보다 씨알이 작아 아쉬움을 남겨주었다. 아마도 누적된 피로감 탓에 음식 맛도 제대로 감상할 여유가 없었으리라. 누적거리 100km를 넘으니 이젠 하루를 마무리하는 종례의식인 폭탄주 마실 기력도 없었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는 5일째, 컨디션은 최악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소리 없는 안개비로부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제법 추적추적 내리던 비는 온종일 우리 뒤를 따라 다니며 물먹은 등산화 뒤축을 질기게도 끌어 당겼

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가락의 물집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오른쪽 발목 복사뼈 위쪽이 등산화에 눌려 한 걸음 떼어놓기가 끔찍한 지경이 계속되니, 간식으로 먹는 양갱에서 떨어지는 것이 정녕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가 없었다.

힘든 날일 수록 엉뚱한 기대에 시달리게 된다. 걷다가 문득 나타나는 이정표에서 예상치에서 더도 덜도 말고 딱 1km가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지만, 현실은 늘 걷는 만큼만 줄어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을 어찌할 것인가?

9코스 종착지 화순 안내소를 지나 안덕에서 늦은 점심으로 선택한 고할망네 고기국수가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되었다. 싸구려 1회용 우의를 벗었다 입었다를 반복하며 10코스마저 주파한 후 11코스 초입의 대정성지 (천주교 정난주 마리아 묘지)까지 다다른 끝에야 오늘 일과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성게보말국과 해물뚝배기가 결코 수준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쓰디쓴 입맛을 다스리기 쉽지 않은 힘든 하루였다.

- 황금륭 한식 뷔페의 따뜻한 배려

6일째 아침, 게스트하우스에서 토스트 몇 쪽과 계란후라이 2개로 떼운 후 어제 저녁 걸음을 멈췄던 대정성지로 이동, 11코스 나머지 거리를 가뿐하게 주파하며 세계 유일의 열대성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성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한다는 독특한 곶자왈의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하다보니 어느새 12코스 시작점인 무릉생태학교에 도착했으나, 유감스럽게도 근처에서 식당을 찾을 수 없었다.

오로지 먹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일정에서 더 이상 인적이 드문 길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인가가 보이는 마을로 들어섰으나, 제법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구멍가게 하나 안보여 다리에 맥의 풀리는 순간 마을회관 앞에서 극적으로 조우한 노인으로부터 마을 외곽을 좀 벗어나면 허브농장이 있고 그 근처에 식당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복음처럼 들을 수 있었다. 오로지 밥 먹기 위해 할 수 없이 올레 코스를 벗어나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알고 보면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으나 어쨌든 20분정도 더 걸어서 찾아간 곳이 '황금륭'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그러나 이 세상 어디보다 정직하고 웅골찬 맛의 저렴한 한식 뷔페식당이었다. 처녀라고 해도 곧이들을 세련된 도회풍의 대구출신 젊은 아주머니가 이곳 먼 제주까지 와서 몇 개월 전 개업한 한식 뷔페는 반찬 가짓수가 쓸데없이 많기는 하나 정작 젓가락 갈 데가 없는 그렇고 그런 싸구려 식당과는 궤적을 달리하는 알찬 메뉴로 길손을 반겨주었다. 이 가격에 이만한 품질이라니!

정작 감동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며칠 강행군 끝에 찌들대로 찌든 행색에 다리를 묘하게 저는 모습을 보고 올레꾼 아니냐고 말을 붙여주는 순간 나도 모르게 며칠째 어떻게든 가야할 길이니 억지로라도 걷는데, 순전히 밥 먹기 위해 본 코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을 걷기가 죽기보다 싫다는 말이 저절로 내뱉어진 것이다.

점심 뒤끝이기는 하나 아직 마무리하기에는 이른 시간, 그런데도 안주인은 새로 들어서는 손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우정 코스를 벗어난 바로 그 지점까지 우리를 태워다 주었다. 값에 비해 너무도 여유로웠던 식사와 함께 올레꾼의 궁핍한 심경을 제대로 챙겨준 주인아주머니의 따뜻한 배려가 이 여정의 나머지 절반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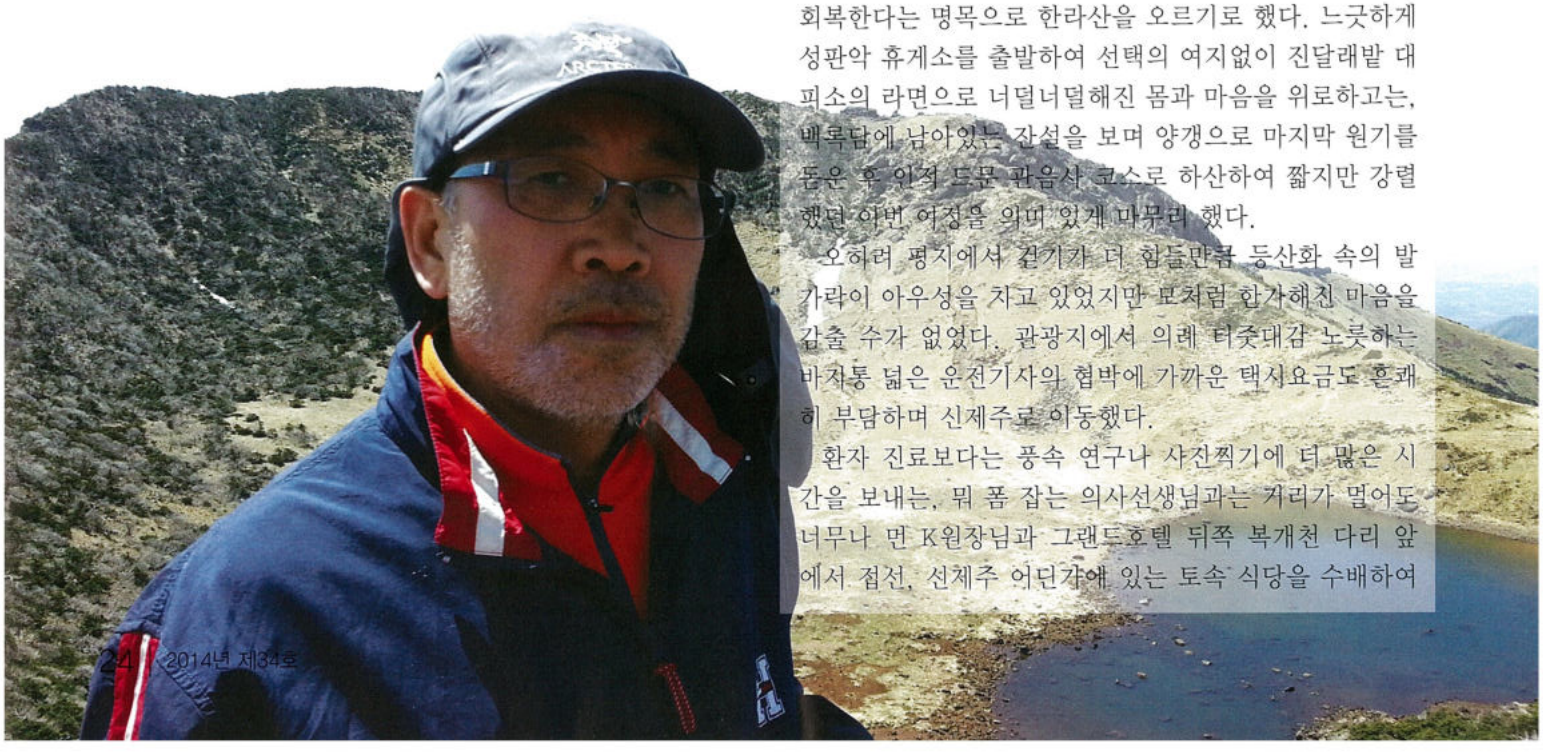
없던 힘도 내어 거침없이 내처 12코스를 마무리하고 맞은 저녁 리조트의 제주오름 정식 한 상은 지금까지 맛보았던 음식들의 종합 결정판 쯤 되는 깔끔한 맛을 보여주었다. 서빙을 담당한 아가씨의 미소가 특별히 싱그러웠음을 덧붙여야겠다.

- 서비스로 나온 자리젓과 갈치속젓

7일째 올레 순방을 12코스로 일단 마무리하고 기력을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한라산을 오르기로 했다. 느긋하게 성판악 휴게소를 출발하여 선택의 여지없이 진달래밭 대피소의 라면으로 너덜너덜해진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는, 백록담에 남아있는 잔설을 보며 양갱으로 마지막 원기를 돋운 후 안전 드문 관음사 코스로 하산하여 짧지만 강렬했던 이번 여정을 의미 있게 마무리 했다.

오히려 평지에서 걷기가 더 힘들만큼 등산화 속의 발가락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지만 모처럼 한가해진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관광지에서 의례 터줏대감 노릇하는 바가통 넓은 운전기사의 협박에 가까운 택시요금도 흔쾌히 부담하며 신제주로 이동했다.

환자 진료보다는 풍속 연구나 사진찍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뭐 폼 잡는 의사선생님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K원장님과 그랜드호텔 뒤쪽 복개천 다리 앞에서 점선, 선제주 어딘가에 있는 토속 식당을 수배하여



서비스가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외지인의 입맛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은 듯한 갈치조림과 한치물회로 조촐하게 회포를 풀었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나가기 전 제주시내 탑동의 그 유명한 '물항식당'을 굳이 찾았다. 중국인의 공습으로 옛 정취를 잃었다는 제주 현지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 촌놈들 눈에는 부자 3년의 기본기가 흐트러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으로 위안을 받았다. 제대로 된 자리젓과 갈치속젓을 아낌없이 서비스로 주는데 더해 말로만 듣던 갈치국과 노르웨이산이 아닌 순 진짜 원조 국산 고등어조림으로 제주 미각여행의 대미를 화끈하게 장식했다.

마지막으로 예의상 귤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다. 그냥 귤은 미안하지만 논외의 대상이고 비싼 탓에 선물로나 먹어보던 한라봉도 제쳐 놓고 천혜향이며 레드향이며 진지향이며 어린애 머리통만한 청견 따위를 심심해서 먹고 물대신 먹고 배고파서 먹고 안 먹으면 섭섭해서 먹고 잠 잘 오라고 먹고 내일 발가락 물집 잡히지 않게 해달라는 취침기도용으로도 먹고 또 먹었다. 제주도에는 정말 귤이 많았다!

'바다가 안 보이는 카페'에 들어가 보고 싶었다

처음 생각하고, 기획하고, 답사하고, 수정하고, 설득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리본달고, 화살표 그리고, 간세 자리잡아 주고, 스탬프 도장에 잉크 채우고 한 모든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아 제주의 속살을 이만큼 보여주기가 쉽지 않았을 수고로움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오름은 오름대로 말똥은 말똥대로 귤밭은 귤밭대로 섬은 섬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원래부터 온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제주의 한쪽 끝의 풍요와 다른 쪽 끝의 여유로움을 두 발로 구석구석 누빈 연후에야 조금은 알겠더라.

시간에 쫓겨 끝내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바다가 보이는 카페'와 '바다가 안 보이는 카페'의 카푸치노 맛이 어떻게 다른지를 왜 고민할 일인지, 서귀포항을 중심으로 연이어 있는 세 개의 섬이 순서대로 섶섬 문섬 범섬인지 문섬 범섬 섶섬인지를 언제 따져볼 것이며, 모슬포 어딘가를 지나며 국토 최남단이라는 마라도가 좋은 날씨 탓에 유독 가까이 보여 '짜장면 곱빼기 두 개'를 소리치면 바로 배달될 것 같은 느낌을 언제 느껴보겠는가?

4.3사건의 상처가 제주 전역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제주 해녀들의 얼굴에 왜 그다지도 주름살이 많은지, 세월호의 이번 선장과 저번 선장이 모두 제주 사람이라는 사실이, 배타적이기로 소문난 제주 풍토에 힘들어 하면서도 의외로 서울 출신 택시기사들이 많다는 것도, 게스트하우스가 다름 아닌 민박집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며, 올레 2코스가 유독 지루해 거긴 빼고 걷는 경우가 많다고도 하고, 서울사람들 남산타워 잘 안 가듯이 올레길 제대로 걸어본 적이 많지 않다는 제주분들의 웃음이 피부에 생생하게 와 닿는 느낌이란!

나가는 말

매일 아침 나와 적어도 반평생 서로 의지하며 동고동락해 온 그 지긋지긋한 무좀 걸린 발가락 하나하나를 라이터불로 지진 바늘로 물집 터트려주고 알코올 소독하고 테이핑 꼼꼼하게 해주는 데도 온갖 불평이며 잔소리 늘어놓는 내게 대체로 질릴 법도 한 후배는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말을 꺼낼 것이다.

"형, 다음 번 산티아고는?" 내 대답은 보나마다 뻔하다. "마 치워삐라. 내 앞에서 산티아고의 ㅅ자도 꺼내지 마라!" 그런데 산티아고 800km는 며칠 걸으면 되나?

뭐, 좀 걸었어!

집으로 돌아오자 걱정하시는 영감님 눈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이 행동하느라 사실 조금 힘들었다. 힘든 티를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힘들었다는 뜻이다. 온 몸 쑤신 건 그럭저럭 파스 몇 장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입술 부르트고 잇몸 들뜨는 건 감출 수 없었다.

이쯤에서 슬쩍 고백해야겠다. 빨리 이 '처참한' 몰골이 사라지기 전에 주변에 자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사실 없지 않았던 것이다. 고생했다는 의례적인 인사에도 별 일 아니라는 투로 "뭐 일주일 동안 한 200km 걸었지!"라고 은근 고생한 티를 내려 애썼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산을 조금이라도 다녀본 적이 있는 이들은 '정말 고생했다', '그 나이에 그만하면 대단하다'는 덕담을 아끼지 않았지만, 정작 숨쉬기 운동 이외에는 별반 운동이랍시고 해본 적이 없는 주변 대부분의 지인들은 "고생했다더니 그 정도밖에 안 걸었어?", "대학생 국토순례도 하루에 50km 정도는 걷는 거 아냐?"라는 말로 김을 아주 제대로 빼는 것이었다.

그래 미안하다. 제주 올레길이 뒷짐 지고 '쓰레빠' 신고 마실 가듯 설렁설렁 걷는 길이 아니란 걸 애당초 무시한 우리의 무지가 크구나. 포장된 5.16 횡단도로가 아니라 오름을 오르고 해안가 바윗길을 지압봉 밟듯이 헤매고 산 정상을 헐떡이며 통과해야 하고 사유지를 지루하게 우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애써 이해시키려 한 내가 어리석었다.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닌데 자랑하려고 먼 길 걸어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 처음부터 내 대답은 이랬어야 했다. "뭐, 좀 걸었어!"

다만 한 가지 이 시점에서 정말이지 무슨 이유로 그리 몸을 학대하며 걸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 심지어는 제일 궁금해 하는 나 자신에게도!

약제학실 동문회
(알바회)

박준상 (39회)
회장

약제학 실험실은 오랜 전통과 함께 동문들의 강한 결속력이 자랑이며,
졸업생들의 모임 또한 매우 활발하다.
재학 중 약제학실에 몸 담았던 동문들의 모임인 알바회가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적인 모임이며, 대학원 출신 중 박사들의 모임인 목원회,
석사를 주축으로 한 석원회,
조교 경력자들끼리 모이는 해바라기회 등도 특징적인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졸업생들의 활동 역시 매우 광범위하여 제약회사와 약국은 물론
변리사, 공직약사, 대학 교수, 목사 등 각계각처에서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약학대학 동문회장을 역임한 서국진, 윤대봉 회원의 활동 또한 빼 놓을 수 없다.

알바회 명칭의 유래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약제반 반장이었던 박기회 회원(68학번)이 약제반을 중심으로 하여 실험반들끼리 친목을 다지고자 탁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대회명을 정하던 중, 하얀 가운을 입은 약사들의 모습을 떠 올려 ALBA라는 이름을 붙여 알바컵 탁구대회를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알바회는 공식적으로 약제학실 졸업생들의 모임으로서, 학생들이 약제반에 가입이 되면 예비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졸업 시까지 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 졸업과 동시에 알바회원으로 정식 가입된다. 현재 총 회원 수 350명을 넘는 알바회는 지금껏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된 약제반의 날과 신년하례식, 졸업생환송회, 신입생환영회, 가을 MT 또는 산행, 학부생들의 방학여행 등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돈독한 모임으로 성장해 왔다.

1977년 봄, 당시 약제반을 이끌고 있던 74학번 전일오, 조윤준 등의 재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김종갑 교수님께 5월 셋째 주 일요일에 Home-coming Day를 개최하여 실험실 출신 식구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하였고, 그 날 졸업생들은 학생들이 손수 준비한 맛깔스런 김치와 돼지고기국으로 배를 불리고 다 함께 축구경기를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짐으로써 모임을 성황리에 마치게 된다. 이것이 올해로 38주년을 맞는 '약제반의 날'의 시초이다.

올해 약제반의 날 행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10월로 연기하여 개최되며, 63학번 선배님(김명우, 엄장효, 유병태)을 필두로 하여 올해 신입생인 12학번까지 자그마

치 50개 학번에 해당하는 회원들이 참여한다. 이와 같이 오랜 역사를 갖는 약제반의 날은, 이제는 단순히 졸업생과 재학생들만을 위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다. 가족 단위의 참가자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많은 졸업생들이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하는 모임으로 성장하였고, 자연스레 그 가족들도 중앙대 약학대학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아버지인 김영섭 회원(72학번)을 따라 어린 시절 약제반의 날에 참석했던 아들 김세창 군은, 나중 01학번으로 약제반 가족이 되어 현재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약제반 학생들은 방학 동안 학교에 나와 선배님들이 사다 주신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어려운 실험을 끝내 마무리하는 열정을 나누었고, 이후에는 함께 떠나는 여행에서 잊지 못할 추억들을 쌓기도 했다. 이러한 기억들은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약제반원이었다면 누구나 교감할 수 있는 전통이 되어, 회원들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알바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핵심이 되어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1991년 김종갑교수님 정년퇴임식, 2001년 25주년 행사, 2003년 목원회 25주년 기념 및 김종갑 교수님 희수연, 2006년 30주년 기념 알바뉴스레터 특집호 발행 등과 같은 기념비적인 행사들을 통해 회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알바회는 후배 양성을 위한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십시일반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다. 충실한 관리를 위해 알바회의 운영과 분리된 별도의 장학위원회를 설립하였고, 1984년부터 매년 약제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82학번 김성배 회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56명의 학생들이 이 장학기금의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장학금 지급은 이전에는 알바회 내부에서 조촐하게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약대 동문회를 통해 지급되어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알바회 장학위원회는 '약제학실 동문회'의 이름으로 연간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동안 선배들은 후배들을 위해 많은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선배들의 다양한 직종에 대한 소개시간을 갖기도 하였는데, 이 전통을 발전시켜 올해부터는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는 각 진로를 대표할 수 있는 선배들을 학교로 초빙하여 재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행사로서, 선배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재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알바회는 졸업생과 재학생이 모두 하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더욱 성장해 갈 것이다.

약제반의 날 37주년 기념행사...
모두 모여 기념사진 한 컷!

신년하례식! 떡국 먹으러 가기 전에 출석 체크하고...

약제반의 날 운동장 행사의 꽃!
학부생 vs 졸업생 의 축구시합!

멘토링! 관심 있는 진로의 선배님께 직접 찾아가
토론하는 열정의 시간...

2월 24일 대한약사회 정기총회
약사금장 : 이규진(9회)

약연상 : 황공용(11회), 김승재(24회)

3월 26일 이기안(7회), 노신희(9회) 동문 명예박사수여식

3월 27일 천안분회 모임

5월 10일 부산지부 정기총회

5월 13일 강서분회 모임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식

서국진(13회), 박기배(20회) 동문 대통령 표창 수상

지난 6월 2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전영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와 함께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제 2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 마약퇴치 교육 및 강의, 2부 기념식 및 3부 토론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2부 기념식에서 마약류 유공자 등에 대한 정부포상이 실시되어 그간 불법 마약류 퇴치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우리 중앙약대 동문회에서 서국진(13회) 동문과 박기배(20회) 동문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신임교수 프로필

이름 **강원구**
직위 **부교수**
전공 **약동/약력학**
이메일 **wkang@cau.ac.kr**

학력

1993	충남대학교	약학	학사
1999	충남대학교	임상약학	석사
2002	독일 Martin Luther Univ. Halle-Wittenberg	약동/약력학	박사

경력

2002~2003	독일 Martin Luther Univ. Halle-Wittenberg	연구원
2004~2005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선임연구원
2005~2010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조교수
2010~2014	영남대학교 약학대학	조교수
201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부교수

한국약사방송국
'소리로 약사사회와의 소통 꿈꾼다'

6월 3일 개국식… 권혁구(9회) 동문 "창조적 방송위해 노력하겠다"

한국약사방송국(사장 권혁구 동문)이 본격적인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 들어갔다. 약사공론에서 임대생활을 마치고 지난 달 독립 사무실을 확보한 방송국은 6월 3일 개국식을 갖고 소리를 매개로 약사사회와의 소통에 나섰다. 20여명의 약사가 출자해 지난 3월 개국한 방송국은 이후 3개월 동안의 시범방송을 마치고 개국식을 기점으로 정규편성을 통한 전파 송출을 시작했다. 권혁구(9회) 동문은 개국식 인사말에서 "눈으로 보는 매체에서 귀로 듣는 매체로 변화해 가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약학계 뉴스, 학술강의, 복약지도, 문화답사, 음악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해 창조적인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방송국이 탄생한만큼 약사사회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지식 습득 등 약국이 변하는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이어 법인약국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동네약국이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말로 법인약국 반대라는 분명한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개국식에는 조찬휘 대약 회장을 비롯해 김희중 대약 자문위원, 김순례 대약 여약사회장, 문 희, 장복심 전 국회의원, 김종환 서울지부장, 함삼균 경기지부장, 전일수 충남지부장, 전영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이광섭 한국병원약사회장, 서정숙 한국여약사회장,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2014년 1학기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명단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	전공	학번	학점	성명	학년
1	본동문회	2,500,000	제약학	20112081	2.96	김현정	4
2	본동문회	2,500,000	제약학	20113059	3.24	홍록기	4
3	본동문회	2,500,000	약학	20112968	3.46	홍정민	4
4	본동문회	1,800,000	제약학	20112126	2.89	박소영	4
5	본동문회	1,800,000	약학	20112491	4.23	백민우	4
6	본동문회	1,800,000	약학	20112493	3.31	서동영	4
7	본동문회	1,800,000	약학	20105499	4.04	심기현	5
8	본동문회	1,800,000	약학	20095365	3.53	최서영	6
9	본동문회	1,500,000	약학	20105743	2.78	김희주	5
10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20105341	2.87	안민지	5
11	본동문회	1,000,000	약학	20112973	3.70	이수진	4
12	본동문회	1,000,000	약학	20095438	2.90	이환희	6
13	여동문회	1,000,000	제약학	20105983	3.39	송지혜	5
14	안양동문회	1,000,000	약학	20095698	3.10	김미나	6
15	26회동기회(물방울장학금)	1,000,000	제약학	20105460	3.45	윤선영	5
16	26회동기회(물방울장학금)	1,000,000	제약학	20095952	3.38	이병두	6
17	약제반동문회	2,000,000	제약학	20105321	2.82	권성은	5
18	나사모동문회	1,500,000	약학	20105498	3.71	김혜민	5
19	약품물리반 동문회	1,000,000	약학	20105253	2.82	최은미	5
20		1,000,000	제약학	20105369	4.26	구희원	5
21	병태생리학 동문회	1,000,000	제약학	20105427	2.54	정슬용	5
22	부산동문회	500,000	제약학	20105297	3.33	임동현	5
23	안산동문회	1,000,000	제약학	20095909	3.95	최인준	6
계		33,000,000					

장학기금 현황

(2014년 6월 30일 현재)

	이름	약정금액
1	장재인(17회) 동문회장	10,000,000
2	손동헌(1회) 명예교수	30,000,000
3	홍흥만(1회) 동기회장	1,000,000
4	1회 동기회 일동	2,000,000
5	故 김명섭(5회) 자문위원	100,000,000
6	용영일(7회) 동문	5,000,000
7	최옥출(11회) 동문	1,000,000
8	김윤국(14회) 동문	5,000,000
9	최해광(17회) 동문	3,000,000
10	이경옥(19회) 동문	3,000,000
11	임경원(20회), 이현숙(31회) 동문	7,200,000
12	김현태(20회) 동문	3,000,000
13	이상일(20회) 동문	5,000,000
14	이극선(20회) 동문	3,000,000
15	정찬헌(20회) 동문	3,000,000
16	이승하(23회) 동문	10,000,000
17	이내흥(25회) 동문	3,000,000
18	이동규(25회) 동문	8,000,000
19	김영후(26회) 동문	6,000,000

	이름	약정금액
20	한갑현(26회) 동문	7,400,000
21	이종양(26회) 동문	3,000,000
22	성정희(26회) 동문	360,000
23	김정호(27회) 동문	6,000,000
24	남상진(27회) 동문	3,000,000
25	박영달(27회) 동문	3,000,000
26	권상수(27회) 동문	3,000,000
27	최충식(27회) 동문	3,000,000
28	민병희(27회) 동문	600,000
29	이영주(28회) 동문	6,000,000
30	양덕숙(28회) 동문	5,000,000
31	장원규(28회) 동문	3,000,000
32	고석일(30회) 동문	3,000,000
33	곽필신(30회) 동문	3,000,000
34	이경우(30회) 동문	3,000,000
35	이병두(40회) 동문	3,000,000
36	김정민(41회) 동문	3,000,000
37	정원희(53회) 동문	2,000,000
합 계		268,560,000

• 모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쾌척하신 자랑스런 동문님들 •

아직 여름이지만...
언제 부터인가 더위를 견딜 만 합니다.
곧... 아침 저녁으로의 서늘한 기운이 곧 다가올
가을을 기대한 탓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늘 자신에게는 부족하고 모자람이 느껴지는 그것들...
그러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가슴에 희망과 기쁨을 품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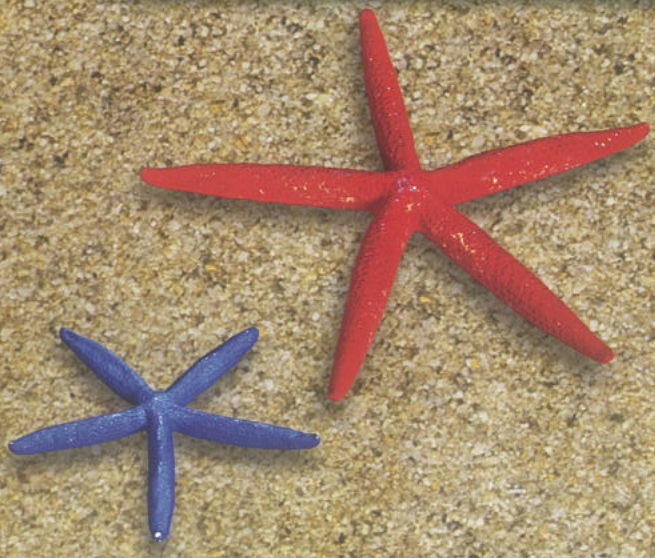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제주도 200km 걷고 폼 좀 잡으렸더니 아뿔싸 산티아고
1,000km 걸은 동기녀석이 식 웃고 있구나.
바다 건너 한라산 배경 남쪽에서 제일 높다는 지리산
천왕봉 1,915m에서 증명사진 찍느라 우쭐대던
시절 "우리 동네에선 5,000m 정도면 mountain이라
하지 않고 그냥 hill이라고 부른다"던
'솔라체' (박범신 소설) 서문의 그 귀절에 가슴 뜨끔했던
기억이 다시금 새롭다.
스스로 가소롭다. 언제나 철이 들어 사람노릇 할꼬!

박희용(23회) 편집위원

학교 발전에 주체가 따로 있을까 싶다. 학교든 재단이든
동문회든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인들 어떠리.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흔쾌히, 애정을 담아 후배들을
위한 청사진에 한 줄을 보태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일방적으로 의무만 다하라는 다그침은 작은 손길마저
거둬들이게 할까봐 걱정스럽다.

김정호(27회) 편집위원



일반의약품

과식, 속쓰림, 소화불량, 속이 답답할때 먹는

복합 소화제

위제로 ZERO 정

부장님의 용트림!
오늘도 속이 많이 불편하신가?

소화불량 식체(위체) 위산과다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 ·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필] 1260-0100

신약개발의 글로벌 리더

일양약품

인터넷 홈페이지 www.ilyang.co.kr

Global · R&D 선도
Hanmi 한미약품
Hanmi
도전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 매출 18% 신약 R&D 투자
• 신약 프로젝트 21건 임상 시험
• 글로벌 개량신약 국내 최초 개발
모두가 쉬운 길을 택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만을 개척했던 한미약품!
인류건강을 위한
혁신신약 연구개발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2호
전화 : (02)565-1700 팩스 : (02)564-1701
E-mail : capa21@hanafos.com
http://www.caupharm.or.kr